

## 한·몽 민속과 구비서사에 나타난 까마귀 상징의 양가성 고찰\*

이 안 나

(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객원교수)

### ◆ 국문초록

본 논의에서는 한몽 두 나라의 까마귀의 상징적 의미 및 그 양가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두 나라 민중들의 까마귀에 대한 인식을 일별해 보고자 했다. 까마귀는 두 나라 모두 흉조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새로 자리하지만, 원래 까마귀는 기충신앙인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신조요, 길조의 상징성을 가져왔다. 한국에서는 태양새 삼족오의 관념이 문화의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으며, 몽골에서는 태양새의 관념은 존재하지 않으나 천신, 신령의 사자 및 통역사, 신령의 화신, 수호신 등의 역할을 해왔다. 한국에서도 샤머니즘을 배경으로 천신, 신령의 사자, 저승차사, 수호적 존재 등의 유사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까마귀는 두 나라 설화 속에서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새로 주로 등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까마귀가 신령한 영적 사신이라는 고대 관념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까마귀는 흑신적 존재로 재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강한 힘과 검은색 이미지, 우는 소리 등으로 불길한 흉조의 양가적 특성을 띤다. 이것은 속신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까마귀의 우는 소리는 때나 시간, 방향, 장소 등에서 각각 예조하는 바가 다르며, 한국에서는 대개 불길한 것을 나타내고, 몽골에서는 대체로 불길하지만 중립적이거나 길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까마귀는 몇 가지 차이는 있으나 두 나라 모두 길흉, 선악의 양가적 특성을 띤 면에서 유사하며,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그 인식이 변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한국, 몽골, 까마귀, 샤머니즘, 길조, 흉조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2-OLU-2250006)

## I. 들어가기

고대로부터 인간들은 보이고 보이지 않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자연물과 더불어 이해하고 또 해결하고자 했다. 고대인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신앙 형태는 대개 해와 달 등의 천체나 동식물, 산과 물, 흙, 불 등의 자연물과 분리되지 않은 조화로운 야생적 사고 속에서 생성되고, 전승되어왔다. 그 가운데 동물은 가장 동적이고 인간과 같이 영적 특성을 갖는 존재로, 어떤 동물들은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신 내지 신의 표상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동물숭배가 널리 보편화되어 정신문화의 한 형태로 풍미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동물이 숭배된 것은 아니며, “최소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인간과 매우 가깝게 있으면서 인간이 지니지 못한 유용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김현주 2009:56) 어떤 동물의 특이성은 해당 동물의 생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면밀한 관찰과 직관을 통해 그 동물의 탁월한 능력을 간파하고, 모종의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로 숭배하는 데 이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동물의 뛰어난 능력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인간들은 그 동물과 친연관계가 있다고 여기며 정신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원시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연물과의 친연관계는 인간을 자연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인간과 자연 만물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영혼(세계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인간과 더불어 상호 유기체로서 하나의 존재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관념이 인간의 집단무의식 세계에 깊이 자리하면서 다양한 상징과 원형상으로 문화를 풍부하게 해왔다.

인간 주위에서 인간 삶에 관여했던 여러 동물들 가운데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과 인간을 잇는 신의 사자(使者)로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새들 가운데 까마귀에 주목하여, 한국과 몽골의 까마귀의 상징성 및 그 양가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두 나라 문화에서 까마귀가 차지하는 의미를 일별하고자 한다. 대개 신령한 동물들은 초능력적인 예지능력을 지니며, 까마귀 역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간 삶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지만, 기본적으로 신령

한 존재들이 그렇듯 금기, 회피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특성으로 인해 길흉의 양가성을 갖는 대표적인 새로 여겨져 왔다. 특히 까마귀의 검은색과 시체에 모여드는 특성 등으로 그 부정성은 불길한 새의 이미지로 낙인되는 경향을 띠어 왔다.

한편 몽골에서 까마귀는 가장 장수하는 동물이며 가장 멀리 보는 새로, 새의 눈을 치료해주는 ‘의원 새’(Д.Цэрэнсодном 1989:130)로 묘사된다. 또한 한몽 두 나라 모두 까마귀의 고대적 관념은 신령한 새로 샤머니즘과 일정하게 관련을 지니며, 까치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새로 인간에게 좋거나 좋지 않은 소식 혹은 새로운 정보를 가져다준다고 여겨졌으며, 속신이나 설화 세계에서 의미 있는 새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사회 형태와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근래로 올수록 까마귀는 그 신성성이 상실되고, 그의 외적 속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자리하면서 기분 나쁜 새로 폄하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까치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까마귀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까마귀에 대한 것은 울음소리나 검은 털 색, 죽음과 관련하여 부정적이고 불길한 흉조 등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고, 몽골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까마귀의 전체적인 형상은 아니며 문화의 저변을 살펴보면 좀 더 다양한 상징성이 존재하는데, 본 논고에서는 그 본래적이고 또 파생적인 형상들을 고구해 보고자 한다.

## II. 신령한 존재, 신의 사자

까마귀는 시체에 모여드는 성격과 털색, 울음소리 등에서 매우 불길하고 기분 나쁜 흉조로 인식되고 있지만, 고대로 올라갈수록 매우 신령한 의미가 부여되었던 새이다. 까마귀의 명칭은 그 울음소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검은 새’ 내지 “신을 뜻하는 ‘금’과 통한다”(김의숙 1993:200)고 보기도 한다. “까마귀는 고대 중국, 한국, 일본에서 천신(天神)이나 일신(日神)을 상징하고, 때로는 그 사자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신조(神鳥)였다.”(이필영 1991:75) 고구려 고분 벽화를 통해 볼 때 까마귀는 태양에 사는 태양새로 3개의 다리

를 갖는 양성(陽性)의 새를 상징한다. 삼족오(三足鳥)에 관한 중국 신화를 보면, 고대 요임금 시절에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나타나 모든 생물이 살 수 없게 되자 활 솜씨가 뛰어난 예(羿)라는 자가 9개의 태양을 쏘아 9마리의 황금빛 깃털을 가진 까마귀가 떨어졌다(袁珂 1993:164)고 한다. 중국 속의 삼족오 문화는 완전히 중국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동이족의 검은 색 승배(王大有 1994:150) 또는 새 승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족오가 태양의 새라고 인식하게 된 이유는 태양의 흑점이 까마귀와 같이 생겼기 때문이며, 양을 상징하는 ‘3’수가 결합되어 생겨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윤경수 1997:84). 또 한국에서는 태양의 붉은색과 관련하여 붉은 까마귀는 매우 희귀한 새로 여겨졌으며, 길조로 인식되었다. 신라 애장왕 2년 무진주에서 붉은 까마귀를 진상하고, 또 3년 8월에 삼량주에서 붉은 까마귀를 진상했다(김부식 2008:256-257)는 것을 보면 붉은 까마귀는 왕께 올리는 특별한 진상 품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까마귀가 태양의 정기(精氣) 상징성을 갖는다는 것을 한국의 <연오랑 세오녀(延鳥郎 細鳥女)>의 전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신라 8대 아달라 왕 4년 동해 바닷가에 연오랑과 세오녀라는 부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바위 하나가 연오랑을 일본으로 데리고 가버린다. 세오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바닷가에 가 바위에 오르니 바위가 그녀를 일본으로 데리고 간다. 그 후 신라에는 해와 달의 광채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일관이 왕께 아뢰기를 우리나라에 있던 해와 달의 정기가 일본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왕이 사자를 시켜 연오랑과 세오녀를 데리고 오게 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왕과 왕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들이 일본에 오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라 하며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그 대신 자신의 비인 세오녀가 짝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대로 제사를 드리니 과연 해와 달이 전과 같이 되었다고 한다(일연 1993:80).

예로부터 고구려나 중국에서 까마귀는 태양의 새로 관념하였고, 위의 전설에서 연오랑과 세오녀가 신라에서 떠난 이후 일월의 정기[日月精]가 사라졌다는 것에서 그들이 태양과 달의 정기와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연오랑은 해, 세오녀는 달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세오녀의 오(鳥)는 까마귀 상징과 관련이 없는 것일까? 달은 보통 토끼나 두꺼비로 상징되며, 여기서 세오녀가 달의 정기를 상징한다고 단적으로 말

할 수는 없다. 그녀의 비단 짜기는 태양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태양신 천조대신(天照大神)<sup>1)</sup> 역시 비단을 짜는 여신으로 형상화된다. 세오녀 역시 비단을 짜며, 그녀가 사라지자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녀가 짠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자 세상이 광채를 찾았다는 것은 세오녀 역시 태양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실갠지나 방적(紡績)은 모든 태모신이나 달의 여신의 하늘 일로 운명의 여신들은 예외 없이 실을 잣거나 베짜기를 한다(진 쿠퍼 2002:325). 이와 같이 베짜기의 이중적 성격은 시대적 위치에 따른 관념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해, 여신의 태양 상징은 좀 더 고대적 형태로 후대 달의 상징성이 병존된 것으로, 세오녀 역시 이러한 태양과 달의 정기를 동시에 내재한 존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새해가 되면 집 앞에 오지봉(烏止棒)이라는 장대를 세웠다. 이 장대 위에 까마귀가 와 앉으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박시인 1994:188). 이 장대는 새해의 빛을 맞이하는 뜻으로 세운 것으로 풍부한 태양이 농작물의 풍년과 직결되는 데서 생긴 풍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까마귀가 태양의 새라는 상징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sup>2)</sup> 이렇게 태양을 상징하던 신조(神鳥)가 불길한 새, 죽음의 새로 변한 것은 대체로 4세기 말 용(龍)의 출현과 일치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김중대 2001:171). 또 음양오행 사상으로 검은색은 북방, 죽음의 상징성으로 인식되면서, 신조이던 까마귀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변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몽골에는 까마귀가 태양을 상징하는 새로 나타나는 경우는 찾기 어렵지만, 북아시아의 여러 종족 가운데 까마귀가 많은 새와 함께 하늘의 뿔개를

1) 일본의 신무천황이 천하를 평정하려고 동쪽으로 가다가 많은 시련을 겪고 나갈 방향을 잃었을 때였다. 꿈에 천조대신이 나타나 “내가 지금 까마귀를 보낼 테니 그것을 방향을 인도하는 것으로 삼으시오”라고 한다. 천황이 잠에서 깨어 보니 정말 까마귀가 날아 내려왔다. 천황은 그 까마귀가 향하는 곳으로 가 길을 찾는다(완역 『일본서기』 2000:69). 이처럼 일본에서도 태양의 여신인 천조대신이 양조(陽鳥)인 까마귀를 사신으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까마귀가 농경에 관련해 길조로 나타나는 것은 청동기시대 농경 기술이 발전되고, 본격적인 식량 생산 단계에 접어들면서 농업신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 전래의 천신, 지모신 스스로가 새로 변신하면서 농업을 전래하고 그 성공을 보장하는 존재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이필영 1991:104).

쇠 부리로 쪼아 그것을 뚫어서 하늘의 빛을 비추게 함으로 태양을 생겨나게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추위와 어둠의 위협에서 구했다고 말한다(Ш.Гадам ба 외 1988:31). 즉, 까마귀가 인간에게 태양의 열과 빛을 가져다주는 문화 영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북시베리아 퉁구스족들은 사냥을 할 때 까마귀를 따라가면 사냥물을 얻게 해주는 행운의 새로 여겼으며, 까마귀는 천지 창조 때 천신께 협조하던 새라고 여긴다(이필영 1991:75).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도 큰까마귀는 빛과 불을 가져다준 문화영웅으로(니콜라스 J. 손더스 2002:116), 조물주의 역할을 하는 새이기도 하다<sup>3)</sup>(진 쿠퍼 2002:92). 몽골이나 한국에는 이러한 고태적 신화관념이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무속에 까마귀는 여전히 신령한 새로 그 위상이 남아있다.

고대 한국의 부족 국가였던 북부여의 해모수는 하늘에서 내려올 때 머리에는 오우관(烏羽冠)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검(龍光劍)을 차고 있었다고 한다(이규보·이승휴 1974:56). 해모수가 까마귀 깃털로 된 관을 썼다는 것은 해모수가 정치적 지도자이자 샤먼적 존재였음을 추측케 한다. 한편 까마귀는 ‘천신의 사자’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데, “북방무속에서는 까마귀가 천신의 사자조수이며, 천신이 지상에 보낸 최초의 샤먼인 동시에 천신 그 자체로 신봉”<sup>4)</sup>(김인호 2006:136)했다. 제주도에서 “심방이 검은 까마귀 형체의 신옷(무복)을 입고 굿을 하는 본의”(같은 책 257)가 바로 이러한 근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몽골 신화에서는 원래 무당이었던 새는 독수리라고 말하며, 독수리가 동물의 부정한 사체를 먹어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고 신화적으로 말한다(Д.Цэрэнсодном 1989:115). 독수리뿐 아니라 “몽골 무속에서 샤먼들은

3) 북극해 연안의 수렵인종인 이뉴잇족에게 갈까마귀는 창조주 신으로 갈까마귀를 죽이면 기후가 나빠진다고 한다(잭 트레시더 2007:99).

4) 야쿠트족 신화 가운데 까마귀가 샤먼의 영혼을 안내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옛날에 이미 죽었지만 주변의 일들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죽어서 땅에 묻혀 있는데 황소가 나타나 지하로 인도하는데, 한 노인이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날 사람이니 다시 데려가라고 한다. 이때 큰 까마귀가 나타나 그 사람을 세상의 지붕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 태양과 달이 동시에 빛나는 땅으로 데리고 간다. 그 땅에는 큰까마귀의 머리를 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남자는 날개 달린 순록의 젖을 먹으며 위대한 샤먼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했다고 한다(니콜라스 J. 손더스 2002:51).

하늘의 동물 가운데 송골매, 까치, 까마귀 등의 새를 크게 존귀하게 여긴다.”(O.Пырѳв 1999:86) 몽골 무속을 신봉하는 자들은 까마귀를 먼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는 길잡이요, 인적이 없는 곳에서 지켜주는 진실한 수호자라고 본다. 또 ‘산신·수신의 신령 앞에서 날아가는 세 마리 검은 까마귀’라고 묘사하는데, 이는 신령의 수호자이자 사자의 의미를 띤다. 또 몽골 호르친다르한 지방의 샤먼들은 모자에 날아가는 세 마리 새를 형상화하는데, 그것을 까마귀로 본다(O.Пырѳв 2003:236). 세 마리 까마귀는 삼족오처럼 샤머니즘의 3수 관념을 배경으로 한다. 또 몽골인들은 “집 위로 까마귀가 날아가면 향을 피우고 비손을 행하는”(O.Пырѳв 1999:88) 습속이 있는데, 이는 까마귀를 신령한 새요, 신의 사자로 여겼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몽골 무속에서 “까마귀는 신령과 수신의 신실한 시종이요, 그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역사라고 말한다.”(같은 책 87) 또 까마귀 외에 “빠꾸기, 까치를 신의 통역사나 신령의 탈것 또는 신령의 화신”(Д.Бум-Очир 2002:51)으로 보는데, 전령의 역할을 언급할 때 까치가 함께 등장하는 것이 흥미롭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유사하다. 한편 만주 샤먼교 의식에서는 솥대 끝에 짐승의 피를 바르고 돼지 내장과 곡식을 올려놓는데, 이는 천신의 시종인 까마귀에게 바치는 예물(최희수 1994:137)이라고 한다. 다른 자료를 보면 “만주족이 솥대를 세우고 그 위에 돼지 내장과 오곡을 던져놓은 뒤 까마귀, 까치가 와서 먹으면 신이 강림했다고 좋아했다.”(김재용, 이종주 1999:311)라고 언급한다.

이와 같이 한국이나 몽골, 만주에서 까마귀가 까치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이들을 함께 까막까치라고 이르기도 한다. 1930년대 일본 학자가 채록한 한국의 서사무가 <바리공주>에 보면 해동 조선국 이씨주(李氏主)<sup>5)</sup> 상감마마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일곱 번째까지 딸을 낳자 아기를 뒷동산 후원에 버린다. 그러자 난데없이 까막까치가 날아와 한 날개는 깎아주고, 한 날개는 덮어주어 공주를 보호해준다(서대석 1997:442-444).

5) <바리공주> 또는 <바리데기>는 한국의 전역에서 전승되는데, 지역에 따라 남성 주인공의 명칭이 ‘수차랑 선배’(함흥본), ‘천별산 대장군’(안동본), ‘업비대왕’(서울, 경기본), ‘오구대왕’(동해안본) 등으로 달리 나타난다.(윤준섭 2018 참조) 서대석은 아까마스 지조·아끼바 다카시의 『朝鮮巫俗の研究』上(1937)에 수록되어 있는 <바리공주>를 소개했다(1997:424).

여기서 까막까지는 신령이 보낸 존재요, 신령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만주에서도 까마귀와 까치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까마귀를 토렘으로 삼으면서 정작 그 기원을 까치에 두고 있다.<sup>6)</sup> 이것은 까치는 까마귀과에 속하면서 까마귀와 마찬가지로 신조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까마귀와 까치가 흥조와 길조로 분화된 것은 후대의 변이일”(김재용, 이종주 1999:311) 것으로 본다.

한편 한국의 마을신앙 대상물인 솟대에도 까마귀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마을과 사람들을 지키고 재앙을 쫓는 수호신적 존재의 기능을 한다. 솟대에는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장대나 돌기둥 위에 얹힌 것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위해 마을의 입구에 세웠다. 솟대 위에 새는 물새인 오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남 해안 지방이나 제주도에서는 오직 까마귀라고만 부른다. 두 지방에서는 나무에 까마귀를 얹히는 형태가 아니라 돌무더기 위에 얹히거나 그 위에 장대를 세워 끝부분에 새를 꿰뚫어서 얹힌 형태”(이필영 1991:26)가 지배적이다. 이것은 “까마귀가 재액을 불러일으키는 불길한 새이기에 그것을 화살로 쏘아 꿰뚫어 잡아 놓음으로써 재액을 미리 예방한다는 것”(같은 책)이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가 와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솟대의 까마귀는 흥조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하늘이나 신령과 관계있는 성스러운 새”(같은 책 74)로 이는 솟대나 거옥대(제주)에 부정한 새를 얹힐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장대에 새를 꿰뚫어 얹힌 것은 안전하게 새를 얹히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지방과 다르게 유독 제주도에서 까마귀가 적지 않게 언급되는데, 그것은 까마귀의 샤머니즘과의 관련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제주는 샤머니즘이 크게 발달한 지역이자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까마귀가 갖는 고유의 신령한 요소가 어느 정도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간(神竿)은 하늘과 땅을 잇는 음과 양의 연결 통로로 땅의 뜻이 하늘로 연결되고, 하늘의 뜻이 땅으로 연결되는 길이다.”(김의숙 1993:198) “까마귀가 과거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조로서 재앙을 막거나 예보하는 길조로 인식

6) 만주의 높은 산의 정상 호수에서 하늘 선녀 3명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까치 한 마리가 붉은 사과 한 개를 호숫가에 떨어뜨려 놓았으며, 선녀 가운데 한 명이 그 사과를 먹고 태조를 낳았다고 한다(Д.Цэрэнсодном 1989:194).



되어 왔기 때문”(같은 책)에 신간 위에 앉아있는 새는 오리보다는 까마귀가 더 고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제주도 이호동이라는 마을에 1930년경 까마귀 솥대를 세웠는데, 이는 그 당시 마을의 젊은이들이 자꾸 죽어갈 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재해가 자주 일어나서 마을의 재앙을 막아보려는 데서 비롯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솥대를 세운 이후로는 그 까마귀가 굶은 재액을 모조리 쪼아 내쫓는 격이 되어서 부락민들이 병고에 시달리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같은 책 202). 이것은 까마귀가 갖는 수호신적인 신령한 힘과 사나운 속성을 배경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까마귀는 흑신(지하신)(아리엘 골란 2004:922) 계열에 속하는 새로 이러한 새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재해나 어려움을 물리친다. 다만 흑신이 그 사나움으로 인해 악신으로 전도되는 특징을 갖듯 까마귀 역시 금기의 부정적인 새로 관념되며 양가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코리야크 신화에는 “까마귀가 인간을 해치는 악령인 카라우를 인간계에 보내 자신이 인간들에게 가르쳐 준, 악령을 물리치는 주술적 능력을 인간들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김인호 2006:259)고 말한다. 한편 제주도 무가 <초공본풀이>와 <이공본풀이>에는 까마귀가 저승차사의 임무를 맡고 있음을 언급하는데, 그 형상을 보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오다가 보니 까마귀가 까악까악 울고 있지 않더냐?/ ‘예, 울고 있습니다.’/ ‘그게 네 어머니 잡아간 저승차사니라.’”(같은 책 298-299) 이처럼 무속에서 까마귀는 저승차사라도 중요한 상징성을 띠어왔음을 알 수 있다.

몽골 설화 가운데 소나무가 상록수가 된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옛날에 신이 인간에게 천 년을 사는 생명수(영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 까마귀를 보낸다. 그런데 도중에 부엉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어대 까마귀가 놀라 입에 있던 물을 소나무에 떨어뜨려 소나무가 상록수가 되었다고 한다(Д.Цэрэнсодном 1989:80). 알타이 이본에는 울겐이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기 위해 천상의 쿠다이 신에게 까마귀를 보낸다. 까마귀가 천신에게서

7) 몽골 샤머니즘에서 흑신과 백신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며, 세계 문화사적 맥락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또 흑신과 백신 계열의 동물에 대한 이해 역시 있어왔다. 흑신은 지신 내지 지하신을 이른다. 흑신은 ‘지하의 암흑’과 결부된 관념이며, 또한 ‘강하고 사납다’는 검은색 상징성과 관련된다.(흑신에 관한 것은 몽골 샤머니즘 자료 및 아리엘 골란(2004:878-1002)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람의 생명(수)을 얻어 물고 오다가 배가 고파 소 사체의 두 눈을 보고 그 만 사람의 생명을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에 떨어뜨려, 그 나무들이 상록수가 되었다고 말한다(C. Дулам 2009:205). 여기서 울젠은 지신적 존재요, 인간의 생명이란 영생수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는 까마귀가 일종의 문화 영웅이요, 신의 사자이지만 그 소임을 다 하지 못해 인간은 오래 살지 못하고, 상록수는 사철 푸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이야기류의 서사에는 까마귀 대신 까치가 등장하기도 한다.

또 몽골 영웅서사시에 까마귀는 천신의 화신으로도 나타난다. 북경본 <계세르>에서 계세르가 마법의 음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고 있을 때 계세르의 천상의 형 아민 사히그치가 까마귀로 변해 계세르에게로 간다. 정오에 서쪽에서 한 마리 까마귀가 날아와 고향으로 가는 것을 잊고 있는 계세르에게 고향을 상기시킨다(И. Дамдинсүрэн 1986:124). 이렇게 천상의 친형이 까마귀로 변신한 것은 까마귀가 신적 존재의 화신이 될 수 있는 신령한 새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렇게 까마귀는 한국과 몽골에서 신(령)의 사신이요, 화신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까마귀가 매우 영특할 뿐 아니라 인간 주변에서 큰 소리로 울어대는 습성, 멀리 나는 생태적 특성에서 비롯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까마귀는 신령한 산신의 사자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라 시대 지통이란 중이 있었는데 그는 본래 이량공 집의 중이었다. 일곱 살에 출가했는데, 그때 까마귀가 와서 울면서 영취산에 들어가 낭지의 제자가 되라고 말한다. 지통이 길을 가다 한 중을 만났는데, 그에게 낭지 스님이 어디 있는지 묻는다. 지통이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말하자, 낭지 스님이 “내가 바로 낭지인데 지금 집 앞에 또 한 마리의 까마귀가 와서 알리기를, 거룩한 아이가 있어 바야흐로 스님께 보냈으니 마땅히 나가 영접하라고 하여 이렇게 나와 맞이하는 것이다. 신령스러운 까마귀가 너를 깨우쳐 나에게 보냈고, 또 내게 알려 너를 맞이하게 하니 이는 얼마나 성스러운 일인가! 아마 산령(山靈)의 은밀한 도움인가 보구나. 전해 오는 말에 산의 주인은 변재천녀라고 한다.”라고 하였다<sup>8)</sup>(일연 1993:562-564). 이 이야기는 전통적인 산신령

8) 일본에서도 예부터 까마귀를 신령스러운 새로 보았으며, 오늘날에도 까마귀를 산신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1996:113).

관념과 불교가 습합된 한 유형으로, 산신의 사자인 까마귀가 지통에게 나타나 스승과 관계를 맺어주고 있다.

한편 몽골 영웅서사시에서 까마귀는 주동인물 또는 반동인물의 사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부랴트 영웅서사시 <아바이 게세르>(일리아N.마다손 2008:216-219)에서 사라블린 지역의 세 명의 칸 가운데 최고 연장자인 사간 게렐이 자신의 아들에게 신붓감을 얻어주기 위해 까치와 까마귀를 만들어 세상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알아오도록 보낸다. 까치는 아름다운 신붓감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가지고 온다. 사간 게렐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 다시 까마귀를 보내는데 까치와 마찬가지로의 정보를 얻어온다. 사라블린의 세 명의 칸은 하늘의 동쪽 천신이었던 아타이 올란의 세 아들이 게세르(우일 부테그치)에게 패해 지상에 떨어진 존재였으니, 역시 신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부랴트의 <아바이 게세르> 서사시는 샤머니즘을 배경으로 하며, 신의 사신인 까마귀의 역할이 반동인물의 사신으로 형상화되고 있지만, 주동인물의 사신으로도 나타난다. 게세르를 돕는 하늘 용사 가운데 에르헤 만잔이 사라블린 지역의 장수에게 부상을 당하자 까치에게 부탁해 하늘용사들에게 어려운 정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까치가 거절하자 까마귀에게 다시 부탁한다. 그러자 까마귀가 그 부탁을 받아들여 하늘용사들에게 가서 에르헤 만잔이 부탁한 말을 전한다(같은 책 242-245). 이들 주동인물 역시 지상의 게세르를 도와주기 위해 내려온 천상의 용사들이다. 이것을 보면 까치보다 까마귀가 더 먼 곳을 나는 새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이처럼 까마귀는 신의 사자, 신의 말을 전달하는 통역사로서 역할은 영웅 서사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이때 까마귀는 선악의 양가성에 걸쳐 있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까마귀의 신령한 측면은 한국과 몽골 모두 샤머니즘과 관련된다.

### Ⅲ. 소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새

구비문학을 통해 보면 모든 새가 말을 하는 동물로 인식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까마귀나 까치 등의 몇몇 새가 주로 소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설화 상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새로는 까마귀와 까치가 지배적이다. “세계적으로 큰까마귀는 말을 하는 새로, 예언하는 새”(진 쿠퍼 2002:286)의 상징성을 갖는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월 음력 대보름에는 찰밥을 만들어 까마귀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는데, 『삼국유사』 <사금갑(射琴匣)>조에 이에 대한 전설이 전한다. 신라 21대 비처왕 10년 천정천에 거동하였을 때 쥐가 나와 사람의 말로 까마귀를 쫓아가 보라 하자, 왕은 기사(騎士)에게 까마귀를 쫓아가 보라고 한다. 기사가 까마귀를 쫓다가 피촌에서 두 마리 돼지가 싸우는 것을 보고 까마귀를 놓쳐버린다. 그러자 천정천에서 노인이 나와 글을 올리고, 그로 인해 왕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거문고 갑에 숨어 있던 궁주와 중을 죽이고 목숨을 구한다(일연 1993:92-94). 이 전설에는 까마귀 뿐 아니라 쥐, 돼지, 노인 등이 나오며, 까마귀는 정보를 전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며, 핵심적인 존재라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해마다 정월 상해(上亥), 상자(上子), 상오일(上午日)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고 15일을 오기일(烏忌日)이라 하여 찰밥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같은 책 94). “까마귀는 농경사회에서 농사의 풍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동물로 인식”(김영준 2019:414)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9)</sup>

몽골의 설화 <왕자 곰버와 평민의 아들 공고르>에는 두 마리 까마귀가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마법의 물건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왕의 아들 곰버와 평민의 아들 공고르가 친구로 지내며 먼 길을 가다가 한 나무 그늘에 누워 잠이 든다. 곰버는 9가지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때 동서 양쪽에서 까마귀가 날

9)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보름날 까마귀에게 오곡밥 또는 곡물을 두어 농사가 잘 될 것인지 풍흉을 점치거나, 밭농사가 잘 될 것인지 논농사가 잘 될 것인지 점쳤다(김영준 2019:415). 일본의 경우에도 까마귀는 산신의 심부름꾼으로 벼농사의 풍흉과 관련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같은 책).

아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한 까마귀가 다른 까마귀에게 “동쪽에 일곱 악귀들이 마법의 지팡이를 서로 빼앗으며 다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하고 묻는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그곳에 가서 악귀들로부터 마법의 지팡이를 얻게 되고, 또 두 까마귀가 날아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마법의 신발, 머리에 쓰면 보이지 않게 되는 검은 마법의 모자를 얻어, 그것으로 나라를 혼란케 하는 사악한 승려와 여우로 변신한 왕비를 퇴치한다. 그리고 평민의 아들 공고르는 왕위에 오르고, 왕자 곰버는 왕의 오른팔 신하가 된다(Д.Цэрэнсодном 1982:129-133).

이 설화에서 까마귀가 한 말은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마법의 물건을 얻게 되며, 그것의 도움으로 악귀의 변신인 왕비를 죽이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 평민의 아들 공고르가 왕이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까마귀는 나라의 흥액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고르와 곰버에게 그 흥액을 물리칠 마법의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하여, 결과적으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결과를 낳게 한다.

또 북두칠성 기원신화의 부랴트 이본인 <일곱 노인>을 보면 부모가 죽어 고아로 남은 두 형제 중 형은 부자이고, 동생은 가난하여 부잣집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어떤 나무는 형 같고 어떤 나무는 자신의 모습 같아 베지도 못하고 돌아오곤 하여 주인집에서 쫓겨난다. 도중에 한 노인을 만나는데, 그가 나무 아래서 잠자고 있는 사이에 노인이 그의 혀를 당겨 70개 바늘로<sup>10)</sup> 찌른다. 그 후 그는 새의 말을 알아듣게 된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나무에 날아와 앉은 암수 두 마리 까마귀가 하는 말을 듣게 된다. 수까마귀가 나라의 왕자가 병이 들었는데, 그것은 뱀속에 뱀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암까마귀가 어떻게 하면 왕자의 병이 나올 수 있는지 묻자 수까마귀가 “말 때 중에 3년 동안 수태하지 않은 암말을 죽여 비계가 있는 한 조각 고기를 불에 올리고, 고기가 타며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염에 왕자의 입을 벌려 연기를 쐬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한다. 새의 말을 알아듣게 된 젊은이는 곧바로 왕에게 가서 까마귀가 말한 대로 하자 뱀속에서 뱀이 나오며 왕자의 병이 낫는다(Д.Цэрэнсодном 1989:63-64).

10) ‘바늘로 혀를 70번 찌렀다’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까마귀는 새의 말을 알아듣는 자가 있는 곳에서 나라의 왕자가 병이 난 이유와 그 해결 방법을 말함으로써 왕자의 병을 고칠 수 있게 하고, 착한 젊은이에게도 도움을 주는 존재로 나타난다. 여기서 까마귀는 치료 능력을 갖는 흑신적 속성을 보여주며, 새의 말을 알아듣는 특별한 자에게 모종의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수까마귀는 암까마귀와 이야기하기 앞서 나무 아래 있는 사람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새의 말을 알아듣는 자는 나중에 북두칠성 중 하나의 별이 되는데, 대개 새(까마귀)의 말을 알아듣는 자들은 범상한 존재가 아니며 모종의 신비한 힘에 이끌린 비범한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두 사미승>이라는 설화에는 부자 아들과 귀족의 아들이 지식을 배우러 티베트의 바론조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부자 아들이 귀족 아들의 학식이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시기하여 그를 죽인다. 그때 귀족의 아들은 “아와르쉬!”이라고 말하고 죽는다. 그 말의 뜻을 아무도 풀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암수 두 마리 까마귀가 날아와 그 말의 뜻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순수하고 좋은 친구가 나를 쇠 펜으로 찢러 죽였다.”라고 한다. 마침 바위 밑에 앉아있던 가난한 젊은이가 그 말을 듣는다. 그는 귀족에게 이 사실을 전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귀족은 못된 사미승을 인적이 없는 곳으로 보내 죽인다(Д.Цэрэнсодном 1982:225).

이 설화에서 까마귀는 중간에서 진실한 정보를 말함으로써 악한 자를 징벌하는 매개자가 되고 있다. 까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건의 진상과 그 해결 방식을 알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령한 예지자로서의 까마귀의 고대적 관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까마귀는 어떤 소식을 전한다기보다 사건의 진상을 드러냄으로써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간접적인 비판자로 등장한다.

이렇게 몽골의 설화 속에 나타난 까마귀는 사건의 단초와 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예지적 존재로 나타나며, 새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어떤 사건 속에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악한 자를 징계하는 정의의 대변자가 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새 말을 알아듣는 아이>라는 설화를 보면, 옛날에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새 말을 알아듣는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한 나무 밑에 고기가 있으니 가보자고 한다.

아이들이 함께 가서 보니 정말 소고기가 있었다. 그것은 소도둑이 소를 훔쳐다 잡아먹고 남은 고기였다. 그때 난데없이 사령들이 나타나 아이들을 소도둑으로 몰아 잡아간다. 자신들은 도둑이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고 감옥에 가둔다. 원님은 새 말을 알아듣는 아이를 불러 제비로 여러 가지 시험을 하여 아이가 새 말을 알아듣는 것이 진짜 사실로 드러나자 아이들을 풀어준다(임석재 1993:275-277).

새 말을 알아듣는 아이는 보통 단순히 새의 말만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다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된다. 위의 이야기에서 원님이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아이들에게 고기와 술을 먹였는데, 그 아이만은 고기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이 왜 아무 것도 먹지 않았냐고 묻자 그 고기는 사람고기요, 술은 사람으로 만든 술이라고 했다. 그 연유는 죽은 소는 사람의 젖을 먹여 키운 소이고, 술은 시체를 임시로 묻어두는 곳에서 자란 밀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같은 책 277).

이와 유사한 이야기로, 새 말을 알아듣는 아이가 까마귀 말을 듣고 가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지만, 아이가 살인자가 아님이 밝혀지고, 이어 아이가 나라에서 잃은 옥새를 찾는 큰 문제를 해결하여 나중에 평양감사가 되었다(같은 책 277-279)는 이본도 있다.

이처럼 한국 설화에서도 까마귀가 정보를 전하는 새요, 새 말을 알아듣는 자는 표면적으로 범상해 보이지만 내적으로 예지력이 있는 탁월한 존재로 나타난다. 이처럼 신의 말을 전하는 통역사요, 신의 사자의 까마귀 형상이 설화에 이르면 정보나 소식을 전달하는 새의 모습으로 전환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 속에서도 까마귀는 예지능력을 지니며, 새의 말을 알아듣는 자 역시 비범한 존재로 까마귀의 말을 실천하는 자요, 통찰력을 지닌 존재로 마침내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한국이나 몽골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다.

#### IV. 징조, 예조의 양가성

일반적으로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죽음이나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로 본다. 까마귀의 까만 색깔은 우는 소리와 함께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사체를 주로 먹는 죽음과 관련된 생태적 조건으로 까마귀를 불길하게 여기는 관념이 배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까마귀가 울고 가면 침을 세 번 뱉어 부정한 소리를 씻는 습속이 있었다(허재영 2008:113). 몽골에서도 까마귀는 “좋지 않은 소식을 예조한다 하여 크게 꺼리며 까마귀가 울면 ‘일곱 개 산 너머로 가라/ 언덕의 땅 밑으로 들어가라/ 돈독 무당의 처마 밑으로 지나가라’라고 하여 언제든지 눈에 보이지 말라는 뜻으로 언어주술을 행한다.”(Ш.Гаадамба 외 1988:77) 이처럼 몽골에서도 까마귀 울음소리를 매우 불길한 것으로 생각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까마귀를 샤먼과 관련시켜 보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국의 평북지방 풍습 가운데 정월 16일 아침 일찍 까마귀가 날아다니기 전에 현 신발짝을 지붕 위로 던져 넘기는데, 이날 까마귀가 지붕 위로 지나 가면 사람이 죽거나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습속이다(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1994:231). 또 정월 대보름날 지방에 따라 까마귀에게 약밥을 주거나 물에 말은 밥을 주기도 하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오기일(烏忌日)의 풍속과 관련이 있다. 전남지방에서는 약밥 대신 오탁밥을 주는데, 까마귀가 와서 먹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다고 했으며, 쌀을 많이 먹으면 논농사가 잘 되고, 콩을 많이 먹으면 밭농사가 잘 된다고 하였다(같은 책). 이처럼 까마귀가 날아오나 오지 않느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농사일을 점쳤다.

“몽골 북쪽 다르하드 샤먼의 아가르 하이르한(성산)의 무가에 까마귀의 ‘깹깹’하는 소리가 나면 이를 가장 혐오스러운 저주의 소리라 하네.”(С.Дуян ам 2007:131)라고 한다. 한국에는 “까마귀 열두 소리에 하나도 좋지 않다.”(김도환 1993:571)는 속설이 있는 것처럼 까마귀 울음소리는 대개 듣기 싫은 불길한 소리로 여겨졌다. 이처럼 두 나라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대체로 불길한 것, 흉한 것을 예조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한국에서는 까마귀의 울음소리와 관련된 속신이 적지 않은데, “까마귀가



울면 그 동네 초상이 난다.”, “밤에 까마귀가 울면 국상(왕이나 왕족의 죽음)이 난다.”, “밤에 까마귀가 날면 난리가 난다.”, “저녁에 까마귀가 울면 동네 아이가 죽는다.”, “길 떠날 때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허재영 2008:112), “길을 가는데 까마귀가 가로질러 가면 재수가 없다.”, “전염병을 앓을 때 까마귀가 울면 병이 퍼진다.”(김성배 1995:239), “정월 초하룻날 밤 까마귀가 울면 그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고 집에 우환이 있다.”(村山智順 1991:191) 등등 까마귀는 대개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는 새로 형상화된다.

또 한국에서는 까마귀가 어떤 시간에 우느냐에 따라 일어나는 상황을 달리 예측한다. 즉, 까마귀가 아침에 울면 아이가 죽고, 낮에 울면 젊은이가 죽고, 오후에 울면 노인이 죽고, 지붕 용마루에서 울면 상인(上人)이 죽고, 처마 밑에서 울면 하인이 죽는다고 하였다. 또 여러 마리가 함께 울면 싸움이 나고, 동쪽을 향해 앉아서 울면 양식 없는 집에 손님이 올 징조이고, 서쪽으로 앉아 울면 소문이나 기별이 들려올 징조이고, 초저녁에 울면 화재가 일어날 징조, 밤중에 울면 역적이거나 살인이 날 징조라 하였다(현용준 1996:131). 이처럼 한국에서 까마귀 울음소리는 대개가 흉조를 나타냄을 보여준다.

한편 몽골에서는 까마귀를 아주 먼 것을 보는 예조의 새(С.Дулам 2007:129)라고 여기는데, 까마귀가 우는 시간에 기준으로 하여 그 예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시에 울면 권세가에게 나쁘고, 축시에 울면 가축이 죽고, 인시에 울면 좋은 사람이 오고, 묘시에 울면 고기와 술이 이르고, 진시에 울면 나라 가운데 매우 좋은 소식이 들리고, 사시에 울면 여행객이 오고, 오시에 울면 생각한 일을 이룬다. 미시에 울면 말다툼이 일어나고, 신시에 울면 손님이 오며, 유시에 울면 오후나 그다음 날 춥고, 비바람이 분다. 술시에 울면 매우 좋고, 해시에 울면 딸자식을 가진 여인네가 온다고 말한다(같은 책 131).

또 우는 소리에 따라서도 예조하는 바가 다른데, 우는 시(時)와 마찬가지로 길하기도 하고 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공” 하고 울면 먹을 것이 생기고, “탕탕” 하고 울면 대상(隳商)이 이르고, “괏괏” 하고 울면 나라에 좋고, “송송” 하고 울면 사람들 모두에게 나쁘고, “구구” 하고 울면 여인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또 방향에 따라 서쪽에서 울면 적이나 벗이 사신을 보내고, 북쪽에서 울면 적과 도둑이 이르고, 동쪽에서 울면 여자

가 아이를 데리고 올 터인데, 관여하지 말라. 남쪽에서 올면 크게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것(같은 책)이라고 하여 길하기도 하고 흉하기도 한 것을 예조하지만 대체로 좋지 않은 일을 예조한다.

이처럼 한국이나 몽골에서 까마귀의 우는 때나 시, 방향 등에 따라 그 예조하는 바가 매우 세밀하게 나타나며, 한국의 경우 대체로 병, 우환, 죽음 등 흉한 것을 예조하고, 몽골의 경우는 대개 흉조로 나타내지만 때로 중립적이거나 길한 예조를 드러내기도 한다.

몽골 오이라드에서는 까마귀가 올 때 “좋은 소식을 말하거나/ 좋은 말을 하면/ 반추위에 가득 비계를 주겠다/ 나쁜 소식을 말하면/ 나무총으로 쏘아 죽이리라.”(Д.Баттогтох 1994:125)라고 말한다. 이렇게 까마귀는 길흉의 두 가지 말을 하며 다니는 새라고 널리 말한다(С.Бадамхатан 1987:390). 또 몽골에서는 까마귀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즉 까마귀가 오 전에는 신의 심부름꾼, 오후에는 악귀의 심부름꾼이 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를 오전에 만나면 길하다 하여 좋은 징조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까마귀를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지는 않는다(Д.Цэрэнсодном 1989:130). 이러한 오전, 오후에 따른 양가적인 특성을 가진 새로 한국에서는 까마귀가 아니라 까치를 생각한다. ‘아침 까치가 올면 반가운 손님이 오고, 저녁 까치가 올면 초상이 난다’는 속신이 있다.

한국에서 까마귀가 우는 것을 길한 징조로 보기도 하는데,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 그해 풍년이 든다(김성배 1995:194)는 것이다. 농사와 관련된 경우 까마귀는 대체로 길한 상징성을 띤다. 몽골에서도 까마귀를 길하게 보는 경우를 살펴보면, 할하에서 경주마로 유명한 세첸 한 아이막의 하르달 장진 베일 지역의 조련사들은 말을 묶을 때 까마귀가 말 묶는 말뚝 위에 앉으면 말이 빨리 달린다고 하여 크게 길하게 여겼다. 그것은 까마귀가 오래 살고, 멀고 높게 나는 것과 관련하여 말이 빨라질 것을 예조하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С.Бадамхатан 1987:390). 이처럼 까마귀는 경우에 따라 생활 속에서 한-몽 모두 길한 것을 예조하는 새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의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신라 48대 경문왕의 서자로, 태어날 때 아기 이가 두 겹으로 나 있고, 목에서는 이상한 소리를 내어 임금을 해할 상(相)이라 하여 내다 버렸다. 그는 절로 다니며 숨어 살았는데, 어느

날 바리때를 손으로 받쳐 드니, 까마귀가 무언가를 물어다 그릇에 놓아주었는데, 살펴보니 왕(王)자를 새긴 조각이었다(이규보·이승휴 1974:180). 궁예는 후에 미륵불을 자처하면서 후고구려를 세운 인물이다. 그가 임금이 될 것을 알리는 존재로 까마귀가 등장한 것은 반드시 길한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앞일을 예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몽골에서 까마귀는 흉조로 인식하며, 울음을 불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로 보았지만, 몽골에서는 까마귀가 오전과 오후의 역할이 달라지며 좋고, 나쁜 소식을 모두 전하는 새로 인식되었으며, 비교적 흉조로 편향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반면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까마귀를 불길한 것을 예조하는 새로 보았으며, 농사와 관련해서는 길조로 여겨졌다. 까마귀의 부정적 측면은 한국과 몽골 속담에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 논문에서 속담은 언급하지 않았다.

## V. 맺음말

자연은 인간의 정신적, 물리적 세계를 둘러싼 유기체적 환경으로, 그 안에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물의 생태와 상징성에 대한 관심은 곧 인간 정신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인간 주변에 서식하는 까마귀는 일반적으로 그 우는 소리, 검은색, 시체에 물러드는 생태적 특징 등으로 불길한 새로 여겨지지만, 새 가운데 매우 영특하고, 예지능력이 있으며, 높고 멀리 날 수 있는 특성 등으로 인간 삶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해 왔다.

현대에는 까마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새로 자리하지만, 고대 한국에서 태양새로 매우 신령한 상징성이 부여되었다. 특히 태양 상징의 까마귀는 세 발 달린 까마귀(三足鳥)로 묘사되며, 3수는 샤머니즘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샤머니즘이 발달한 지역에서 까마귀는 여전히 신조의 위상을 보여준다. 한국의 제주도에서 까마귀에 대한 신령성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것은 이러한 샤머니즘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풍농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세우는 솟대 위의 까마귀는 길조로서 신령한 새이자 재앙을 쫓는 수호신적 존재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몽골에서는 까마귀는 태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나지 않지만, 샤머니즘의 세계관 속에서 신령한 새로 존귀한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천신 및 수신·산신 등의 사자 또는 신령의 화신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도 산신 및 신(령)의 사자, 저승차사 등의 역할을 한다. 한국과 몽골 설화에서 인간의 말하는 새로 등장하는 까마귀는 어떤 소식이나 정보를 간접적으로 알려줌으로써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은 자의 불의를 드러내어 피해를 받는 민중의 대변인이 되기도 한다. 이것 역시 까마귀가 영적 사신이라는 연장선 위에서 발전된 설화적 형상으로 한국과 몽골에 유사하게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까마귀는 흑신(지하신) 계열에 속하는 새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재앙이나 어려움을 물리치는 수호신적 역할을 하는데, 검은 이미지와 강한 힘으로 도리어 혐오와 기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새로 전도되는 특징을 갖는다. 즉, 까마귀는 길조요, 신조로 관념되었으나 점차 부정적인 새로 분화되면서 양가성을 띠는 대표적인 새로 관념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샤머니즘의 쇠퇴 및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까마귀의 신성성이 약화되고, 부정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몽골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에서 까마귀는 대개 죽음, 병, 전쟁 등의 불길한 일을 예조하지만 한해의 농사가 잘 될 것인지 아닌지를 점치기도 했다. 까마귀의 부정적 관념은 속신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그 울음소리와 시체에 몰려드는 성질로 인해 한국에서는 까마귀의 우는 시간, 때, 방향 등에서 대개 불길한 징조를 드러내는 흉조로 나타나며, 몽골에서는 대부분 불길하지만 때로 중립적이거나 길한 예조를 드러내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까마귀는 신령한 새였으며, 길조로서 그 역할이 적지 않았으나 민중 가운데 두려움이나 기피의 대상이 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러 흉조의 이미지가 강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 ■ 참고문헌

- 김도환(1993), 『한국속담활용사전』, 한울아카데미.
- 김부식(2008), 『삼국사기』 상, 신서원.
- 김성배(1995), 『한국의 민속』, 집문당.
- 김영준(2019), 「신라 오기일(烏忌日) 축국의 양상과 성격」, 『한국학연구』 제55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403-428.
- 김의숙(1993),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 집문당.
- 김인호(2006), 『한국제주 역사문화 뿌리학』 하, 서귀포문화원.
- 김재용, 이종주(1999), 『왜 우리 신화인가』, 동아시아.
- 김종대(2001), 「동물을 통해 본 민속상징과 의미에 대한 한 고찰」, 『민속학 연구』 8호, 민속박물관, 153-182.
- 김현주(2009), 『토템리즘의 흔적을 찾아서』, 서강대학교출판부.
- 니콜라스 J. 손더스(2002), 『동물의 영혼』, 창해.
- 박시인(1994), 『알타이 신화』, 청노루.
- 서대석(1997), 『구비문학』, 해냄.
- 아리엘 콜란(2004), 『선사시대가 남긴 세계의 모든 문양』, 푸른역사.
- 袁珂(1993), 『中國古代神話』, 김희영 편역, 육문사.
- 완역 『일본서기』(2000), 전용신 역, 일지사.
- 王大有(1994), 『龍鳳文化源流』, 임동석 역, 동문선.
- 윤경수(1997), 『한국신화와 고전문학의 원형상징성』, 태학사.
- 윤준섭(2018), 「서사무가 안동본 <바리데기>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48집, 한국구비문학회, 185-213.
- 이규보·이승휴(1974), 『동명왕편·제왕운기』, 을유문화사.
- 이필영(1991), 『숫대』, 대원사.
- 일리아N.마다손(2008), 『바이칼의 게세르 신화』, 양민중 옮김, 솔출판사.
- 일연(1993), 『삼국유사』, 김봉두 편역, 교문사.
- 임석재(1993), 『한국구전설화』 7, 평민사.
- 진 쿠퍼(2002),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역, 까치.
- 잭 트레시더(2007), 『상징 이야기』, 김병화 옮김, 도솔.

- 村山智順(1991), 『조선의 점복과 예언』, 김희경 역, 동문선.
- 최희수(1994), 「조선민족의 새문화」, 『조선족민속연구』, 연변대학출판사, 128-142.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6),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사.
-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1994), 『한국민속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 허재영(2008), 『생활 속의 금기어 이야기』, 역락.
- 현용준(1996), 『제주도 신화』, 서문당.
- С.Бадамхатан(1987), *Монгол угсаатны зүй* 1, УБ.
- Д.Баттогтох(1994), *Ойрад монголын аман зохиолын дээжис*, УБ.
- Д.Бум-Очир(2002), *Монгол бӨӨгийн зан үйл*, УБ.
- Ш.Гаадамба бусад(1988), *Монгол ардын аман зохиол*, УБ.
- Ц.Дамдинсүрэн(1986), *Гэсэр*, УБ.
- С.Дулам(2007), *ЗӨн совингийн бэлгэдэл зүй*, УБ.
- С.Дулам(2009), *Монгол домог зүйн дүр*, УБ.
- О.Пүрэв(1999), *Монгол бӨӨгийн шашин*, УБ.
- О.Пүрэв(2003), *Монгол бөөгийн шашны нэр томъёоны тайлбар толь*, УБ.
- Д.Цэрэнсодном(1982), *Монгол ардын үлгэр*, УБ.
- Д.Цэрэнсодном(1989), *Монгол ардын домог үлгэр*, УБ.
- Д.Цэрэнсодном(2000),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УБ.

❖ ABSTRACT

## A Study on the Ambivalence of Crow Symbol in Folklores and Oral Narratives in Korea and Mongolia

LEE, AN NA

International University of Ulaanbaatar, Visiting professor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symbolic meanings and ambivalent characteristics of a crow in Korea and Mongolia, and thus understand the concepts of the bird among people in these two countries. The crow has a strong image due to its ill omen both in Korea and Mongolia, but it originally held the symbolism of principle and good omen based on the traditional faith of shamanism. In Korea, the concept of a sun bird with three feet held important meanings in the culture. In Mongolia, there was no concept of a sun bird for the crow, but it played its roles as a heavenly god, envoy of a deity, interpreter of a god, incarnation of a deity, and guardian. In Korea, the crow also played similar roles as a heavenly god, envoy of a mountain spirit, grim reaper and protecting being against the backdrop of shamanism.

In both these countries, the crow often appears to deliver news or information in tales, which derives from an ancient idea that the crow is fundamentally a divine spiritual envoy. The crow has ambivalent characteristics, preventing disasters as a dark god and also serving as an unlucky ill omen due to its strong power, black image, and crying sound. In many folk beliefs, the crow predicted different things according to the occasions, times, directions, and places of their cries. In Korea, the crow generally represented something ominous. In Mongolia, it represented something neutral or lucky, in addition to something ominous in general.

The crow is similar in Korea and Mongolia for its ambivalent characteristics between good omen and ill omen and between good and evil despite some differences, and perceptions of the crow have changed basically based on shamanism.

Key words: Korea, Mongolia, the crow, shamanism, good omen, ill omen

■ 논문투고일 : 2023. 05. 19

■ 심사완료일 : 2023. 06. 07

■ 게재확정일 : 2023. 06. 09